

韓國企業의 收益性和 生産性成果의 配分에 關한 諸問題

白 永 勳

目 次.....

- (1) 序 論
- (2) 企業의 收益性和 生産性分析에 對한 一
般的 考察(Lehmann, Schnettler 의 分析方
法을 中心으로)
- (3) 企業의 收益性 및 生産性的 趨勢
- (4) 經濟與件의 變化和 企業의 收益性問題
- (5) 企業經營에 있어서의 生産性成果 配分
問題

「資本主義 社會主義 共產主義 및 穴居人
을 不問하고 어느社會에 있어서나 企業體
의 社會에 對한 機能과 責任은 經濟的
成果에 있다. 그리고 企業體의 存續은 어느
社會에 있어서나 그 經濟的 成果如何에 있
다.」

—Peter F. Drucker—

(1) 序 論

歷史的으로 본다면 經濟的 變化는 主로 外部
의 힘으로 이루어졌다. 즉 戰爭 征服 地理上의 發
見 宗教運動等 外的變化가 經濟構造에 作用함으
로써 經濟變化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이와 反對로 現代의 産業經濟構造의 變化
는 外的인 것보다 「內部的」要因에 依해서 일어나
고 있다. 말하자면 經濟的 變化가 새로운 經濟的
變化力을 創造하고 이것이 또 다시 經濟構造에
作用함으로써 經濟構造는 擴大 아니면 縮小를 거
듭하고 있다. 이것이 現代資本主義의 特質이라
할 수 있다.(1)

産業構造에 있어서는 그 變化가 經濟活動 및 經
濟制度의 目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現代의
産業經濟에 있어서 典型的인 變化는 擴大 즉 經
濟內部로부터의 新資源 新製品 新市場의 發展이
라고 할 수 있다.

擴大가 産業經濟의 目的이며 至上課題라고도
할 수 있으니 社會는 産業企業體에 對해서 收縮
을 防止하고 擴大를 피하도록 要求하지 않으면
안된다. 말하자면 擴大는 生産性 및 收益性的의 同
時的 向上을 意味한다.

따라서 近代經濟構造의 核心인 企業體는 生産
性を 增大시키고 同時에 收益性を 擴大시키지 않
으면 안된다. 收益性 및 生産性的의 增大는 企業體
自體에 對해서도 必要不可缺의 要素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企業體 自身の 存續 및
安定에 對한 威脅을 막는 主要手段이기 때문이
다. 生産性 增大는 보다 國家의 觀點인 反面, 收
益性(profitability)은 企業體의 單位로서 意味深長
한 概念이다. 이것은 實로 産業經濟에 있어서 中
心的 概念이다. 그 理由로선 收益性이 現在까지
企業經濟에 있어서는 唯一한 尺度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見地에서 企業의 收益性이란 micro
的 觀點과 生産性增大란 國家單位的 觀點에서 본
macro的 見地를 보다 密接하게 論하고자 하는—
—말하자면 semi macro——것이 本論文의 主要骨
子라 하겠다. 企業活動을 企業의 單位에 局限시
키지 않고 보다 넓은 意味에서 國民經濟活動과
密接한 聯關性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資
本主義經濟의 核心的 흐름이라 하겠다.

「豊富속의 貧困」을 막아야 하는 高度 資本主
義의 國家에서 보다도 發展化에의 platform에 서
있는 우리나라 經濟構造에서 보다 切迫한 문제
이다. 서로 相反된 要素를 가지고 있는 生産性
과 收益性문제의 分析方法을 論하려고 할 때, 企
業活動 樣相의 變化가 時代의 潮流라 한다면 從
來의 分析方法도 當然히 變化가 있어야 한다. 經
營分析은 目的이 아니고 手段이기에 分析을 하는
目的이나 對象의 field가 變化함에 따라 妥當히
分析方法도 變化를 가져와야 한다.

(1) J.A. Schumpeter: Theorie der Wirtschaftlichen Ent-
wicklung, Vorwort.

(2) 企業의 收益性和 生産性分析에 對한 一般의 考察

오늘날 資本主義 經濟組織의 核心을 이루고 있는 會社企業의 實態研究은 經濟學分野에 있어서 큰 脚光을 받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分野에 對한 研究實績은 많지 않다. 그러나 漸次的으로 企業의 經營分析 領域에 있어서 生産性分析의 重要性이 認識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生産性分析이 活潑化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從來부터 傳統的인 經營分析의 支柱였던 收益性分析과의 關係에 있어서는 반드시 明確한 關聯性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 結果 生産性分析이 갖는 作用을 過大評價하거나 혹은 그와 反對로 輕視하거나 하는 相異한 見解가 생기고 있다.

또 企業의 實證的 分析에 依據한 具體的인 數直를 보아도 收益性分析과 生産性分析에서는 相異한 結果가 나타나고 있다. 즉 生産性이 큰 企業은 반드시 收益性이 높다고 할 수 없으며, 反對로 높은 收益性を 올리고 있는 企業이 生産性에 있어서는 낮을 때도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對立關係는 中小企業에 있어서는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勿論 이 點에 있어서는 經營類型의 相違로서 나타나는 現象이라 할 수 있지만 兩者의 關係를 理論的으로 整理하고 適切한 經營分析에 이바지할 必要가 있겠다.

따라서 本論文에서는 이러한 理論的 實證的 要靑에 依하여 收益性分析과 生産性分析의 相互關係를 理論的으로 解明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첫째, 獨逸 經營學의 系譜에 依據하여 收益性 思考와 生産性 思考와의 關係를 「國民經濟的 觀點」과 「個別企業의 觀點」과의 交錯의 問題로서 捕捉하여 個別企業水準으로서 分析體系를 類型化하고, 둘째, 生産性 志向型分析의 體系를 Lehmann 學說에 依據하고, 셋째, 收益性 志向型分析의 構造를 Schnettler 의 主張에 依據함으로써 兩者의 相互關係를 整理하는 出發點으로 삼고자 한다.

보다 많은 視野에서 본다면, 收益性과 生産性과의 關係는 分析觀點의 相違에서 區別할 수가

있다.

즉 國民經濟的 觀點에서 觀察하는 경우 國民經濟的 再生産과의 關係가 強調되고 國民經濟的 生産性의 把握이 中心의 問題로 생각된다. 이것에 對해서 個別企業의 觀點에서 觀察하는 경우에는 個別企業의 投下資本回收과의 關係가 問題시 되고 따라서, 個別企業의 收益性의 捕捉이 첫째 問題로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넓은 視野에서 본다면 生産性은 國民經濟的 觀點에 있어서의 主導的 指標이며, 收益性은 個別企業의 觀點에서의 主導的 指標로 나타나게 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國民經濟的 觀點에서는 生産性이 中心이고 따라서 國民經濟的 生産性의 向上은 대단히 重要하다고 볼 수 있지만 經營分析의 觀點에서 問題되는 것은 個別企業의 立場이라 할 수 있으니 兩者는 Dimension 이 틀리는 領域에 屬하고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財貨經濟的 思考와 貨幣經濟的 思考”의 對立으로서 展開된 “슈미트-리이가”論爭은 이것에 關한 것이라 하겠다. 즉 「슈미트」는 財貨經濟的 思考를 基礎로 해서 實體資本維持를 強調하고 共同經濟的 目的下에서 生産性 思考를 主張한 反面에 「리이가」는 貨幣經濟的 思考에서 名目資本維持를 提唱하였으며 貨幣所得獲得의 目的 밑에서 收益性思考를 強調하였다. 이와 같이 對立된 兩學說을 融合 超克하려고 한 것이 Schmalenbach 의 評價二元論이다.⁽¹⁾

즉 Schmalenbach 는 共同經濟的 生産性의 捕捉을 重要視하였지만 現實的 企業計算으로서 그 捕捉이 不可能하기 때문에 貨幣收支計算으로 解消시켰다. 다시 말하면 生産性의 重要性은 認定하지만 實際에 있어서는 收益性 思考를 中心으로 해서 觀點이 變質, 構成化되어 갔다.

위에서 論한 바와 같이 國民經濟的 生産性 思考는 個別企業分析의 範圍外의 問題이며 個別企業 計算으로서의 捕捉하기 困難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지만 收益性思考만을 個別企業의 主導指標라고 생각하는 것도 問題라 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와 같은 觀點에서 본다면 企業活動의 價値는 主로 收益性에만 關係되고 企業活動이 國民經濟的 再生産過程과 關聯되는 面을 全然 考慮하지 않았

(1) E. Schmalenbach: “Grundlagen dynamischer Bilanzlehre” ZfH 13 Jg. S. 2, 3, 98.

기 때문이다.

따라서 收益性 思考를 支柱로 하면서 國民經濟와의 接合面을 문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하면 生産性思考를 導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現在 우리들은 獨逸經營學의 系譜로서 이와 같은 生産性思考의 展開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2) 前述한 Schmalenbach에 의한 共同經濟의 生産性의 高調나 Nicklisch에 의한 經營成果(3) (Betriebsertrag) 概念의 提唱 더 나아가서 Lehmann에 의한 價値創造(Wertschöpfung)의 思考(4)의 展開가 그 代表的인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要約한다면 個別企業 水準에 있어서 收益性思考는 生産性思考를 뒷받침하는 것이고 이것에서 부터 經營分析에 있어서는 收益性分析이 中心點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生産性分析으로서 補完하는 方法으로 體系化 시켜야만 한다. 그렇다면 收益性分析과 生産性分析의 關係는 論者에 따라 어떻게 생각되고 있는가? 이 點에 對해서 우리들은 具體的인 例示의 紹介를 中心으로 하여 두개의 相違한 分析體系를 가진 論者의 見解를 補完시키고자 한다. 즉 그것의 하나는 生産性分析에서 出發하여 收益性分析으로 展開하는 法方이고 또 다른 하나는 收益性分析 속에서 生産性分析을 補完하려는 方法이다. 여기에 우리들은 前者를 「生産性志向型」이라 하고 後者를 「收益性志向型」 分析體系라고 하겠다.

Lehmann의 經營分析體系는 個別企業의 觀點에서 國民經濟와의 關聯을 志向하는 것이다. 따라서 窮極的으로는 收益性思考에 關係되는 것이지만 그 特徵으로서 生産性思考를 重要視한다. 즉 生産性分析을 中心으로하여 收益性分析으로 擴充되어가는 「生産性志向型」 分析體系로서 그 特徵을 갖는다.

Lehmann의 經營分析體系의 出發點은 그의 經營概念이라 할 수 있다. 즉 周知하는 바와 같이 Lehmann은 세가지의 經營概念을 想定하고 있다.

첫째로 作業領域(狹意의 經營)과 營業領域을 統一시킨 것을 「生産單位로서의 經營」(廣意의 經營)이라 생각하고 이것과 「財務單位로서의 企

業」과의 統一體를 全體經營經濟(全體로서의 經營)라고 하였다. 狹意의 經營은 말하자면 製造, 加工領域이며 生産性은 이 領域에서 主導指標라고 생각된다.

廣意의 經營은 作業領域 營業領域(調達販賣)을 包括한 生産面으로서의 經營이며, 全體로서의 經營은 財務面까지 包攝한 經營體를 말한다. 그리하여 이들 領域의 主導指標로서 收益性을 생각한다. 우리들은 Lehmann이 이와같이 狹意의 經營을 限界지우고 따라서 廣意의 經營概念을 擴充시켜서 生産성과 收益性을 關聯시킨데 注意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狹意의 經營計算에 「價値創造」(Wertschöpfung)의 思考를 導入함으로써 Lehmann은 生産性思考를 強調하여 國民經濟의 生産面과의 接合을 試圖하였다고 생각된다.

Lehmann은 生産性分析과 收益性分析을 關聯시키는데 있어 簿記計算을 「狹意의 經營計算」 「廣意의 經營計算」 「內部的 全體計算」 「商法上の 全體計算」 등으로 四區分하였다.(5)

그리고 이 理論과 比較할 수 있는 Schnettler(6)의 經營分析體系는 個別企業의 投下資本의 効率測定을 中心으로해서 構成되어 있다. 따라서 「收益性志向型」 分析體系로서 特徵을 가지고 있다. 즉 이것은 收益性分析을 基軸으로 해서 展開된 것이고, 生産性分析은 어디까지나 補足手段으로서 생각되고 있다. Schnettler는 經營內部에서의 管理分析思考가 重要視되고 있으며 比率算定의 基礎가 되는 要素의 對應關係(Entsprechungsverhältnis)가 強調되고 있다. 따라서 收益性分析과 生産性分析에서의 關聯은 Lehmann처럼 嚴密하지 않고 兩者를 機械的으로 分離하였으며 다만 投入 產出關係란 點에 있어서는 結合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以上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收益性分析과 生産性分析과의 關聯性은 理論的으로나 實務的으로나 대단히 重要한 問題이다. 個別企業의 單位에서의 經營分析은 收益分析을 基軸으로하여 展開되고 있지만 個別企業이 國民經濟의 一細胞이며 生

(2) 商學論集 7卷 4號 : (山上達人著)參考.

(3) H. Nicklisch: "Die Betriebswirtschaft" 1932, S. 682 ff.

(4) 企業會計 82卷3號 : 山上達人의 論稿參照.

(5) M.R. Lehmann: "Industrielle Betriebsvergleiche" 1958, ss 108-9.

(6) A.Schnettler: "Betriebsanalyses" 1958.

産을 基礎로 하여 國民經濟와 관련되어 있는 限生産面과의 結合性을 無視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理由로서 生産性分析이 또한 重要視되는 것이며 生産性分析과의 論理的인 結合이 없는 收益性分析은 經濟 및 經營分析을 實施하는 方面에서 無意味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反面 生産性分析을 보다 強調함으로써 그 限界性을 忘却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즉 個別企業에 있어서 生産性分析은 窮極의으로 收益性分析에 奉仕하게 된다.(7)

(3) 企劃의 收益性 및 生産性的 趨勢

前節에서 論한 收益性 및 生産性的 一般의 問題點을 方面으로 하여 韓國經濟의 收益性 및 生産性的 實態를 實證的研究(Empirical Study)方法을 基礎로 하여 論하고자 한다. 勿論 이 實證的研究에는 避할 수 없는 限界가 있다는 것을 附言하고 싶다. 그것은 統計資料의 制約이 큰 原因이라 하겠다.

一般的으로 企業體의 單位에서 考察한다면 收益性을 規定하는 要因으로서는 價格效果, 合理化效果, 生産擴大效果등을 들 수 있다 하겠다. 또 이 세가지의 相互關聯의 效果가 보다 크게 收益性에 作用할 때가 있다. 먼저 一般의 考察에서 韓國의 經濟는 貧困의 惡循環에서 脫皮하지 못한 典型的인 後進國經濟構造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動亂의 餘波로 既存産業의 廢墟化와 아울러 政策面으로서의 無秩序로 消費財生産供給으로 因한 跛行的인 消費財需要만을 肥大시켰다. 즉 傳統의 産業인 農産物加工業(綿紡織, 製粉, 製糖, 釀造業)등의 現代化를 추구하였을 뿐이다.(1)

이러한 構造의 惡條件 속에서도 變動과 多少나 마 發展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1963年度 下半期에서 부터 外換需給의 不均衡으로 因하여 重大한 轉換期(2)에 놓여 있는 것은 避할 수 없는 事實이다.

우리나라 製造業體總數 15,204個(3) 중에서 食料品 纖維工業 및 皮革工業 등으로 構成되어 있는

第1次消費財工業의 構成化가 全業體의 66.9% 化學工業 고무 石油 및 石炭製品 등으로 構成되어 있는 第2次消費財工業部門의 比重은 17.0% 나머지 生産財工業部門의 構成比는 14.0%로 되어 있고 第1次消費財工業部門과 第2次消費財工業部門을 集約的消費財工業으로 看做하여 消費財工業 對 生産財工業의 比例로 나누어 보면 83.9% 對 14%의 比率로 되어 있으며 더욱이 生産額으로 보면 86.7%, 11.9%이고 製造工業의 附加價値上으로 보면 85.6% 對 12.8%의 比率 (%)

	業體數	從員數	生産額	附加價値總體對比	GNP對比
第1次 消費財工業	66.9	64.8	65.0	63.2	9.6
第2次 消費財工業	17.0	18.0	21.7	22.2	3.4
生産財工業	14.0	15.0	11.9	12.8	2.1
其他 製造業	2.1	2.2	1.4	1.6	0.6
計	100.0	100.0	100.0	100.0	15.7

을 各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分析의 結果는 우리나라 工業의 收益性이 構造上으로 보아 얼마나 微弱한 位置에 놓여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보다 科學的 觀測을 하기 爲하여 1958년과 1960年度 附加價値의 業種別 및 現規模別의 構成比를 檢討 함으로써 生産性을 分析把握코저 한다.

鑛業 및 製造業全體에 對하여 鑛業의 構成比의 動態를 살펴보면 1958年度에는 13.7%이었던 것이 1960年度에는 14.9%로 增加하여 0.8%의 增加率을 보이고 있는데 比하여 製造業은 1958년에는 86.3%에서 1960년에는 85.2%로 減少하였다.

鑛業에 있어서는 土砂石採掘業이 1.5%에서 1960年度에 2.3%로 增加하여 53.3%의 가장 높은 增加率을 보이고 있으며 石炭鑛業이 3.9% 金屬鑛業이 0.4%의 增加率을 보이고 있는 反面에 非金屬鑛業은 1958년의 9.2%에서 1960年度에 6%로 감소하여 34.8%의 減少率을 보이고 있다.

한편 1.3%의 減少率을 보이고 있는 製造業을 보면 紙類 및 紙類製品 製造業이 1.9%에서 3.2%

(7) Lehmann體系와 Schnettler體系의 近接性을 摸索하려는데 不遇하였으니 앞으로 經營分析統計의 體系에 있어도 많은 問題點이 남아있으니 이것은 後日의 課題로서 研究할만한 價値가 있다고 본다.(筆者 註)

(1) 拙著 : 韓國經濟와 工業化發展에 關한 研究. p. 15.

(2) Ibid: p. 118.

(3) Ibid: p. 79.

로 增加하여 68.4%의 增加率을 보이고 있는데 資本의 生産性이 比較的 높다. 石油 및 石炭製品 製造業은 1.9%에서 2.9%로 增加하여 52.6%의 增加率을 보이고 있으며 고무工業이 40% 金屬製造業이 41.7% 製材業이 比較的 높은 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纖維工業이 附加價値의 構成比에 있어서 22.5%의 減少率을 보이고 있는 것은 原料事情의 惡化와 市場의 狹少化로 因한 産業活動의 不振 즉 收益性의 低調와 더불어 生産性의 減少도 同時에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附加價値의 變化 %

code number	1958	1960	增 減 率
11	65.9	68.5	3.9
12	23.1	23.2	0.4
13	1.5	2.3	53.3
14	9.2	6	-34.8
15	0.3	—	—
16	13.7	14.8	8
鑛業計	100.0	100.0	—
20	9.6	9.7	1
21	10.5	9.6	-8.6
22	27.4	24.0	-22.5
23	4.0	4.6	15.0
24	3.9	5.4	38.5
25	0.9	1.1	12.2
26	1.9	3.2	68.2
27	5.0	4.6	-8
28	0.6	0.4	-33.4
29	4.0	5.6	40.0
30	5.5	4.8	12.7
31	1.9	2.9	52.6
32	8.5	9.2	8.2
33	4.2	2.4	-42.9
34	2.4	3.4	41.7
35	2.9	3.0	3.4
36	1.3	1.3	0
37	3.4	3.1	-8.8
38	2.1	1.7	-19
製造業計	100.0	100.0	—

*資料 : 生産性研究 15輯 (韓國生産性本部 研究所)

한편 收益性問題를 簡單히 分析한다면 製造業은 前年보다 71.2%의 增加率로서 9.09%로 上昇된 反面에 鑛業은 前年度의 高水準을 지탱하지 못하였다.

	1960		1961		1962	
	比率	增減率	比率	增減率	比率	增加率
製造業	4.63	—	5.31	14.7	9.09	71.2
鑛業	4.08	—	11.12	172.5	9.31	-16.3

*資料 : 韓銀企業經營分析 P. 92 (1962)

다음 規模別로 본다면 製造業은 中小企業 9.15% 大企業이 9.09%로서 鑛業에 있어서도 中小企業이 3.26% 大企業이 9.59%(4)로서 製造業에 있어서는 中小企業이 오히려 高率인데 反하여 鑛業은 大企業이 越等히 높은 收益性을 나타내므로 對照를 이루었다.

그리고 年度中 收益性이 높은 業種은 金屬의 25.79%를 위시해서 製材 및 木材品(14.91%) 飲料品(13.21%) 化學製品(10.05%) 등의 順位로 되어 있다. 收益性이 低調했던 業種은 電氣業의 4.83%를 비롯하여 電氣器具(5.71%) 金屬製品(5)(5.78%)이다.

끝으로 參考的으로 美國製造業의 收益性에 關해서 簡單히 分析해 두기자 한다. 이것은 先進國에 있어서 企業의 收益性은 어떠한 效果로서 規定되며 그 收益性은 어떤 趨勢性을 보이고 있는가를 우리 나라와 比較 分析하기 爲한 것이다.

美國의 製造業에 焦點을 두어 1952~58年(1952

美國 製造業에 있어서 利潤價格 및 生産性 (1952 基準)

	賣出額 利益率	製品價格	物 的 生産性	付加價値 生産性	生産量
1952	100.0	100.0	100.0	100.0	100.0
1953	98.5	98.7	103.4	105.4	108.1
1954	93.3	98.8	106.1	107.4	100.8
1955	109.7	99.2	112.8	116.1	112.1
1956	96.3	102.4	114.8	120.2	115.3
1957	94.0	105.4	118.1	125.3	115.3
1958	79.9	106.8	122.6	—	108.1

※資料 :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1959. (6)

年 基準)동안의 利潤價格 生産性 및 賣出高의 變化를 檢討해 보면 賣出高利益率은 1953年 및 54년에는 低下狀態를 나타내었으나 55년에는 顯著

(4) 韓銀刊 : 企業經營分析(1962) 및 經濟統計年報(1963)

(5) Ibid. p. 30.

(6) 企業の成長と收益性(三菱經濟研究所 著), p. 153.

히上昇을 보이어 peak 狀態를 記錄하였으나 56年以後 또다시 低下되어 58년에는 最下狀態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物的 生産性은 1952年以後 着實한 向上을 밟아 利益率의 peak 인 55년에는 52年の 水準에 對해 13% 58년에 對해서는 23% 各各 上廻하였다. 한편 製品價格은 1952~54年까지는 下降하였으며 55년에는 回復하였으나 52年の 水準 밑에 있었다. 그러나 56년부터 本格的인 上昇狀態를 나타내고 있다. 一般的으로 利益率 즉 收益率을 規定하는 것은 合理化效果 價格效果 및 生産擴大效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前述하였다. 여기서 合理化效果란 것은 物的 生産性 또는 附加價值 生産性과 同一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즉 合理的인 經營으로서 收益性を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企業自體의 運營을 收益力으로 維持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즉 收益性和 附加價值生産性 혹은 物的 生産性의 變化를 考察한다면 附加價值 生産性은 物的 生産性과는 같은 變化를 나타내고 있으며 한편 收益率은 附加價值 生産性과의 相關度는 極히 微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企業의 收益性和 生産性에 있어서——同時的 考察下에서——相關의 關係를 찾을 수 없다. 더 나아가서 日本 製造業에 있어서 收益性和 生産性 關係를 統計資料로서 調査해 보면 生産擴大效果和 合理化效果의 同時作用으로서 收益性이 變化하고 있다. 그러나 收益性의 變化에 生産擴大 效果가 보다 크게 作用하였음을 表에서 알 수 있다. (2)節에서 論議되었던 것처럼 Lehmann 및 Schnettler의 分析方法을 導入함으로써 보다 細密한 韓國企業의 生産

(日本の例)

區分 年度	利益率		合理化效果		價格效果		生産效果	
	賣上高 純利益率	總資本 利益率	附加 價值 生産性	物 的 生産性	製品 價格	賣上高	生産量	
昭和3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1	134.6	137.4	113.7	104.4	122.4	123.5	123.5	
32	146.4	153.1	120.3	107.6	173.8	146.4	146.4	
33	106.9	103.4	116.8	100.5	180.3	147.0	147.0	
34	130.8	120.2	130.7	101.6	193.4	185.2	185.2	

資料：企業の成長と收益性(三菱經濟研究所 著) p. 153

*前掲한 美國 製造業에 있어서 利益率, 生産性을 나타내고 있는 統計表를 參照할 것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性 및 收益性を 分析함으로써, 國民經濟의 視野에서 企業活動의 範圍를 規定함과 아울러 健全한 企業의 發展을 꾀하도록 하는 것이 國家經濟의 根本的 要請이라 하겠다.

그러면, 이 統計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企業의 收益性은 價格效果에서 보다 큰 影響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企業活動이 인플레이션의 影響으로 畸型的인 形態로 變化 發展되었다. 즉 國民經濟의 立場에서 본다면, 希望의인 展望을 얻을 수 없는 企業活動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價格效果에서 收益性의 變化를 招來한 主된 原因은 우리 나라 消費構造의 異質化에 起因된다. 즉 消費財生産에 主力을 둔 企業活動은 國家經濟의 立場에서 보다 商業的이며 收益性에 主目的이 있었다. 이것은 우리 나라 經濟의 內的 要因도 있었으나 外的 要因 즉 戰後에, 導入된 援助가 重要經濟與件으로서 나타난 因果關係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現象을 보다 具體的으로 分析 考察하고자 한다.

(4) 經濟與件의 變化와 企業의 收益性 問題

오늘날 우리 나라 企業의 發展過程에는 勿論 社會的 및 政治的인 要素가 作用하였음은 否認 못할 事實이나, 이것이 國民經濟의 視野에서 生産性과의 聯關點을 찾아볼 때 現在의 企業活動에서 얻은 收益力이 어떤 影響으로서 形成되었는가를 考察하는 것도 또한 重要한 課題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A會社의 實例

區分 年度	收益性		合理化效果		價格效果		生産擴大	
	賣上高 純利益率 指數	總資本 純利益 率	物 的 生産性 指數	附加 價值 生産性 指數	製品 價格 指數	賣上高 指數	生産 量 指數	
19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60	134.6	137.4	112.8	106.0	134.0	122.4	123.5	
1961	146.4	153.1	119.3	113.8	155.2	173.8	146.4	
1962	158.2	168.3	120.0	114.2	172.4	188.3	152.1	

資料：Top Management Seminar 報告書(韓國生産性本部)

美國의 對韓經濟援助가 生活必需品를 爲主로 한 最終消費製品의 導入으로 시작되어 國內消費

性向에 對한 展示效果를 造成한 것은 勿論 1954 年來의 支援援助(SA)도 大部分 이와같은 消費財 工業의 原料導入에 充當되었다.(1) 그러나 이와 같은 美國의 援助는 1956 年을 peak 로 하여 年次的으로 減少되어가고 있으며 그 效果는 韓國 經濟全般에 決定的인 變化를 주고 있다는 것은 既知의 事實이지만 本稿에서는 보다 더 集約的으로 企業에 미치는 影響을 考察하고자 한다.

現在 國際收支構造上에서 보면 工業成長率과 外換保存額의 變動과는 直接的인 因果關係를 맺고 있다.(表 參照)

따라서 長期的 考察에서 우리가 얻은 事實은 韓國經濟가 成長한다는 問題와 가장 密接한 關

美國의 對韓援助 趨勢 (단위: 百萬弗)

	支援援助	技術援助	PL 480	其他	合計
1954	200.0	—	—	—	200.0
1955	261.0	—	15.0	—	276.0
1956	324.1	5.0	48.1	—	377.2
1957	297.0	5.5	18.9	—	321.4
1958	215.0	5.9	50.0	—	270.9
1959	210.0	6.1	33.0	—	249.1
1960	195.3	6.5	—	12.0	213.8
1961	165.7	7.2	51.1	20.02	244.0
1962	92.5	6.5	71.5	—	170.5

※資料 ① 經濟企劃院: Foreign Aid Program Status.

② AID: Operations Report.

※資料: 韓國經濟와 工業化發展에 關한 研究 (拙著) p. 119.

工業成長率과 外換保有額의 趨勢

年 度	工業成長率의 增減	外換保有額의 增減 (萬弗)	1%의 工業成長率에 必要한 外換의 變動額(10,000弗)
1955—1956	-5.3 %	+200	40
1956—1957	-6.7	+700	100
1957—1958	-4.5	+3,100	700
1958—1959	1.6	+100	10
1959—1960	-3.4	+1,000	300
1960—1961	-4.9	+5,000	200
1961—1962	14.4	-4,200	300

係가 있는 것이 外換保有額의 變化란 것이며 특히 工業成長率과 外換保有額殘高와는 相互 反對 方向으로 作用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韓

(1) 拙著: 韓國經濟와 工業化發展에 關한 研究 (韓國生產性本部 研究所 發行). p. 117~128.

國經濟의 오늘날의 特殊性에 비추어 보아 그만큼의 外換保有額의 減少를 招來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過去 7 年間의 趨勢에서 보아 工業成長率이 年 1% 上昇하기 爲해서는 年平均 外換保有

	1958	1959	1960	1961	1962
食料品	14.1	12.3	12.2	9.1	3.9
飲料 및 煙草	—	—	—	—	0.1
食料에 適合치 않은 原材料	4.4	14.4	16.2	13.0	10.9
鑛物性燃料	1.8	2.0	2.9	3.1	2.1
動物性, 植物性 油脂	2.2	1.2	1.3	0.8	0.6
化學製品	11.7	16.2	16.3	25.1	29.7
原料別製品	31.2	28.3	33.5	23.1	22.5
機械類, 運搬用機器	24.1	19.8	13.3	21.8	25.8
雜製品	10.5	5.8	4.3	4.0	4.1
難取扱品	0.1	—	—	—	—
總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 拙著: 韓國經濟와 工業化發展에 關한 研究.

額이 約 300 萬弗 減少된다는 것이다. 卽 上記表에 依해서 分析한 集計의 結果에 따르면 우리나라 工業發展의 年1%의 上昇率이 年 約 300萬弗의 外換負擔을 가져오게 한다. 따라서 年 20%의 工業成長率을 爲해서는 年間 約6000萬弗의 外換이 追加的으로 所要됨을 意味한다.

이와 같은 實情下에 있는 韓國工業經濟의 問題를 보다 깊게 分析하기 爲하여 먼저, 生産手段의 導入實績을 調査해보면 機械類 및 運搬用機械가 總輸入額에서 차지 하는 構成比는 1958 年에 24.1% 이던 것이 1962 年에는 25.8%로 增加하였다.(2) 金額上으로 보면 1958 年의 12,637千弗에서 1962 年에 50,437千弗로 約 3 倍增加하였다.

따라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機械類 및 運搬用機械의 導入增加로 因하여 機械工業의 付加價值 成長率은 極도로 低落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1958 年의 우리나라 全體製造 付加價值上에 占有하고 있는 機械工業의 構成比는 3.2%가 1962 年에 있어서는 1.8%로 下落하였다.

이와 같은 現象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機械類製品의 輸入規模가 無軌道하게 擴大되고 있는 反面에 大部分의 國內機械工業이 極도로 萎縮되어가는 것을 意味하며 韓國의 工業化過程이란 문

(2) 拙著: 韓國經濟와 工業化發展에 關한 研究, p. 149.

제와 關聯하여 實際로 얼마나 큰 政策上의 미스가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外換政策의 不備로 因한 우리나라 企業의 發展性은 一種의 畸型的 形態로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企業의 單位에서본 收益性과 國民經濟的으로 본 韓國工業化 문제에는 多少 相反된 經濟的要素가 있겠으나 6·25 動亂 및 援助의 無誠實性에 依해서 肥大化된 消費財工業의 過度한 發達이라 하겠다.

1962年度의 製造業의 企業活動을 概觀하여 본다면 亦是 相互 背反的 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즉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製造業이 前年보다 무려 122.4%나 增加되었다. 이것은 企業自

純利益의 增減狀況 (前年度對比)

	1962	1961
製 造 業	122.4 %	22.1 %
鑛 業	84.1	37.7

* 資料 : 우리나라 企業經營分析(1962)(韓銀)

體의 收益性으로만 본다면 顯著한 發展이 있었다고 하겠으나 果然 우리들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 드려야 되겠는가도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은 製造業의 生産品目은 大部分이 消費財인 것이다. 國民經濟的 立場에서 본다면 보다 많은 生産財의 生産이 必要한 것은 事實이다. 또 이와 같은 發展뒤에는 無計劃인 外換消費가 있었다.

1963年度에 들어와서 露骨化된 이 外換의 不足이 卽刻의 物價上昇의 要因이 되었으며 앞으로의 國民經濟的 立場——生産性문제와 관련이 되는——에서 본다면 새로운 轉換點을 發見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經濟的 與件을 外換問題에만 限定시키어 論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因子外의 與件으로서 企業의 收益性 問題는 後日에 새로운 資料로서 研究 分析함으로써 後日의 課題로 삼겠다.

(5) 企業 經營에 있어서의 生産性 成果 配分問題

經濟發展의 目的은 窮極的으로 國民生活水準의

向上에 있는 것이다. 이 國民生活水準의 向上이란 것은 物的 消費水準의 增加와 더불어 國民의 餘暇增加를 意味하며 이것은 곧 國民經濟의 發展으로 因한 勞動者의 生活水準 및 賃金水準의 向上이라 하겠다. 이것을 企業의 單位에서 본다면 곧 物的 勞動生産性 向上이라 하겠으며 이것의 成果配分은 賃金水準 및 格差에 主된 意味가 있다. 企業에 있어서 物的 勞動生産性의 向上의 直接的 成果는 單位生産量當 勞動 Cost의 低下로서 나타난다. 이 低下된 Cost의 配分에는 一般的으로 三者分配(1)의 原則에 立却한다고 볼 수 있다.

$$\text{즉 } \frac{Y}{N} = \frac{W}{PK} \text{ 라는 式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

Y; 總生産量 N; 勞動者數 W; 賃金 P; 物價 K; 勞動分配率

여기서 $\frac{Y}{N}$ (物的 生産性)의 向上은 P와 K가 一定할 때만 W에 比例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不安定한 經濟에 있어서는 價格의 變動이 一般經濟情勢에선 事前的 要因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賃金の 引上이 必然的 要請으로 되어 生産性向上은 事後的인 문제로 化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문제 解決에 있어서는 抽象的 公式的인 方法으로는 困難하며, 오히려 具體的인 方法이 效果의 이라 하겠다. 各産業에 있어서 物的 生産性의 變化率과 賃金水準의 變化率이 並行한다고 하면 産業의 種類에 依한 生産性變化의 相違함에 따라 産業間의 賃金格差는 擴大될 可能性이 있다. 즉 資本集約의 産業과 勞動集約의 産業에 있어서 賃金格差는 크다고 할 수 있으니 우리나라와 같은 二重構造的(3) 産業構造에서는 보다 顯著하게 나타나고 있다. (※ 勞動生産性의 國際比較表參照) 長期的 考察에(4) 依한다면 産業賃金格差의 變化는 物的 生産性 變

- (1) 上邊孝著 : 生産性向上의 理論的諸問題.
- (2) 藤林敬三 : 生産性と勞使關係(生産性講座 4)
- (3) 生産性의 理論と實際(日本生産性本部編)
- (4) 美國勞動省勞動統計局의 Evasus 氏는 美國製造工業 37業種에 관한 勞動統計局의 物的 生産性의 統計를 基礎로해서 1923~1939間 各産業의 賃金水準의 變化와 物的 生産性의 變化에 關한 研究에서
 - ① 基準時에 있어서 各産業의 賃金水準의 高低는 物的 生産性의 變動에 關係있다.
 - ② 生産性의 上昇率이 큰 産業이라도 반드시 高賃金水準에 達하지 않는다.

(3) 拙著 : 韓國經濟와 工業化發展에 關한 研究.
 (4) 綜合에 너지 展望에 關한 分析(生産性研究 : 韓國生産性本部 研究所)

化的 格差와는 直接的 關聯性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一般的으로는 比較的 安定된 賃金構造가 存在한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生産性과 賃金사이에 價格要素가 介在되는 까닭이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賃金이 物的生産性에 關聯되는 것보다. 價格關係 市場關係를 反映한 價値生産性에(5) 보다 많이 關聯되는 것을 알수 있다.

勞動生産性的 國際比較

	韓國(1962)		日本(1961)		美國 1951
	中小 企業	大企業	中小 企業	大企業	
製造業	754弗	923弗	1,127弗	2,573弗	6,538弗
(企業隔差)	81.7%	100.0%	43.8%	100.0%	—
鑛業	377	1,185	—	2,150	—
(企業隔差)	31.8	100.0	—	—	—
電氣業	—	2,223	—	5,980	—

註: 1) 韓國은 韓銀調查部, 日本 및 美國은 日統統計局資料

2) 弗當換算率은 韓國이 130원 · 日本은 360圓

3) 企業隔差는 大企業을 100으로한 指數로 表示

그러나 여기에 또한 문제되는 것은 賃金支拂總額이 100%로 價値生産性에 比例한다면 賃金水準과 雇傭은 景氣의 變動에 따라 變化될 수 있으니 이것은 勞動者에 對한 不安定한 賃金政策이 될 것이며 또 先進國家에선 勞動團體의 抵抗을 받고 있다.

그러나 後進國에서는 産業別賃金 格差와 不安定을 縮小 시키자면, 現實的인 問題로서 政策的 要素가 重要하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賃金決定 機構들의 作用을 必要로 하게된다. 生産性 向上 問題보다 經濟政策에서 오는 問題가 보다 現實的

規模別 給與額

1人月平均(單位: 錢)

	生産從業員	事務從業員	事業體全體
(E) 30~ 49名	2,611.66	5,411.42	2,907.61
(F) 50~ 99名	2,920.08	5,774.69	3,197.50
(G) 100~199名	3,102.56	6,815.62	3,475.50
(H) 200~499名	3,427.49	8,256.07	3,922.16
(I) 500名以上	4,366.54	10,090.40	4,623.12
平均	2,971.23	6,366.68	3,295.49

資料: 生産性研究 第10輯.

으로 成果配分에 關聯될 것이다. 成果配分 문제를 根本的으로 본다면 勞動者側은 賃金이 하나의 所得이며 經營者側으로선 하나의 Cost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根本的인 對立關係를 適切하게 解決할 수 있는 것은 理論的인 面도 重要하지만 實際的인 面도 決코 看過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賃金構造를 考察한다면(6) 우리나라의 賃金水準은 아주 낮다. 이것은 窮極的으로 過剩勞動力的 大量的인 存在와 生産構造에 있어서의 低生産性 등에서 오는 現象이다. 表를 參照로 하여 보다 具體的인 分析을 한다면 從業員 100名을 境界로 하여 規模F와 規模G사이의 格差및 從業員500名을 境界로 하여 規模H와 規模I 사이의 格差가 比較的 크다는 事實이다. 이와 같은 事實을 中小企業과 大企業과 巨大企業사이의 賃金 格差라는 見地에서 본다면 理論上 妥當한 歸結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곧 生産性的 顯著한 差異가 賃金上의 格差로 反映된 것이라고 說明할 수가 있다.

끝으로 成果配分에 있어서 傳統的인 方法을 止揚하고 새로운 觀點에서 본 自動的 決定方式이

라카生産分配原價의 實績

(單位: 10億弗)

年次	原材料에附加된 生産價値	總 賃 金	賃金分配率
1914	\$ 9,386	3,782	40.29%
1919	23,842	9,664	40.53
1921	17,253	7,451	43.19
1923	24,569	10,149	41.31
1925	25,668	9,980	38.88
1927	26,325	10,099	38.36
1929	28,719(1)	10,885	37.90
1931	17,462(1)	6,689	38.31
1933	13,150(1)	4,940	37.57
1935	18,553	7,311	39.41
1937	25,174	10,113	40.17
1939	24,487	8,998(3)	36.75(3)
1947	76,175(2)	30,242	39.70

1914~1947平均(±1,663%.....第1圖相關係數參照할 것)39,395(4)

資料: 1914년부터 1947년까지의 아메리카製造工業 Census 數値에 依한 實證的 試查)

라카原理公式: 賃金生産價値 × 39.395% ± 1.663%

(5) 價値生産性이란 附加價値를 意味하고 있다.

(6) 生産性研究 第19輯(韓國生産性本部 生産性研究所 1992)

라카近似常數 (1914~1947)

賃金 \$ 1 에 對한 生産價値 \$ 2,5384

生産價値의 作業者의 分配 39.395% ※ \$ 1,000

生産價値의 會社의 分配 60.605 ※ \$ 1,5384

總生産價値 100,000% \$ 2,5384

相關係數 $\begin{pmatrix} r_1 \\ r_2 \end{pmatrix}$ 9996 ※ $S_y = \pm 1,663$

決定係數 $\begin{pmatrix} r_1 \\ r_2 \end{pmatrix}$ 9992

곧 Rucker plan(7) 및 Scanlon plan(8)이라 하겠다. 이것은 企業體의 附加價値의 決定으로서 얻어지는 機械的 算出方式이라 하겠으나 表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1914年에서 1947年에 걸친 美國 製造工業 統計에서 얻는 結果를 中心으로 論할 수 있다.

이들 plan의 決定은 어디까지나 勞使問題의 解決을 前提로 한 것에 그 特異性이 있다. 그러나

(7) The Scanlon plan: edited by Fredrick G. Lesieur. 1961.

(8) 命坂朔久編著: 라ッカ 브란

앞으로의 資本主義의 企業發展이란 것은 技術革新과 아울러 새로운 勞使關係를 이루는데 있으며 또 이문제들이 必然的인 要件이라 할 수 있겠다.

여기에 勞使關係에서 본 勞動組合의 異質化가 새로운 문제로 나타난다. 즉 지금까지 發達된 英國 佛蘭西의 勞動組合 運動에서 볼 수 있는 勞組의 獨立的 存續性 밑에서 考慮한다면 Rucker plan이나 Scanlon plan의 運用이란 하나의 方式에 지나지 않을 때도 있겠다 즉 이 plan 들은 하나의 Incentive plan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圓滿한 勞使協議란 것이 무엇보다 重要한 前提條件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資本主義의 變質은 Innovation에 그 原因을 둔다면 이 새로운 賃金問題도 亦是 資本主義 發展에 큰 moment 役割을 할 것이라고 期待된다.

(筆者 中央大學校 經商大學 副教授)